

서문

‘냉전’에 관한 연구는 냉전의 종언 이후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론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냉전은 주로 유럽에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미소갈등의 세계화 과정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역사학과 인류학의 작업들은 미소 양국 사이에 존재한 제3세계의 관점,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냉전이 아닌 지역적 냉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연구에서 강조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이전의 식민주의 역사와의 연속성과 단절의 측면, 즉 탈식민화의 과정과 냉전의 등장 간의 연관성 및 그 상호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입과 혁명 사이의 관계라는 정치사회학적 주제와도 관련된다.

한 예로 대표적인 냉전사가인 웨스타(Westad)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떻게 반식민주의 운동이 초기 냉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했으며, 제3세계의 지도자들이 냉전의 경쟁적인 이념 중 하나와 연합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에 반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책의 결론에 이르러 그는 제3세계 냉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외부적 지배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어떻게 개입주의가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약화시키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¹

1 O. A.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6-7.

인류학자의 입장에 서서 냉전사를 고찰하면서 권헌익은 냉전을 “세계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으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관례로 이루어진 체제였다”고 파악한다. 또한 그는 “식민시대 역사와 양극시대 역사의 교차적 차원(즉, 시간의 문제)”과 “냉전의 사회적, 지정학적 질서를 특징지었던, 지역과 세계 사이의 분석 규모(즉, 공간의 문제)”를 논의의 핵심적인 두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냉전은 글로벌한 충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충돌이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경험되었거나 단일한 독립체로 기억될 문제”는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냉전에 대한 글로벌한 추상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상반되는 다양한 역사적 실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세계정치』 22호는 유럽, 동북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구분을 토대로 하여, 각 지역에서 형성된 냉전의 특성과 글로벌 냉전과의 관계를 비교적 고찰한다. 즉 냉전은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현상이 아니고, 그 기원, 전개, 종언, 결과, 지속의 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 이동기는 이질적인 냉전 경험에 대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유럽 냉전체제의 특성을 고찰하여 미국 중심주의적 냉전 이해를 보완·비판하고자 한다. 즉 ‘평화사’의 관점에서 데탕트, 신냉전, 그리고 탈냉전을 거치면서 유럽이 가졌던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인지와 실천의 측면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2 권헌익(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013, pp. 44, 73, 76-77.

이번 『세계정치』 22호에서는 동아시아의 냉전을 동북아와 동남아의 두 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냉전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마상윤은 세 가지 면에서 동북아 냉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냉전 이전의 냉전의 존재라는 역사적 경험의 영향, 두 번째는 알타체제의 성립과 변용 및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제적 냉전과 동북아 냉전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대일정책과 대중정책의 결합, 그리고 중소관계의 전환을 통해 형성된 동북아 냉전의 구조적 특성이다. 그는 더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의 상이한 냉전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양현은 자신의 논문에서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를 미국의 냉전 전략과 역내국가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인도차이나 전쟁이라는 열전의 영향, 전후 미국의 관여/개발정책과 동남아 지역기구 설립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지역의 상대적 자율성, 그리고 역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존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남아 냉전의 특성을 보여 준다.

중동의 사례를 다루면서 김강석은 “글로벌 냉전이 중동의 지역정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미소의 규정성과 지역의 독자성이라는 두 요인 모두 중동 지역의 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랍 민족주의, 아랍-이스라엘 갈등, 정치 이슬람이라는 세 변수를 중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규정한다. 그의 글은 냉전을 통해 중동의 역내 문제가 변형·방치되고, 이 지역에서 냉전 초월적

인 이념이 확산되면서 중동의 냉전이 오히려 글로벌한 영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변웅의 논문은 미소 양국의 영향력 확산과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의 냉전세력에 대한 전략적 이용 사이에 존재했던 상호관계성을 다룬다. 그는 아프리카 탈식민화의 배경과 신생국 지도자들의 정당성 확보 노력을 전제로 하고, 에티오피아 혁명의 전개와 대소 관계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냉전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졌던 전략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박구병은 이 지역의 냉전이 좀처럼 차갑지 않았고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변화무쌍했음을 강조한다. 미국 주도의 반공전선과 쿠바혁명 사이의 관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반공주의적 군부정권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는 냉전기의 동서 갈등과 역외 세력의 개입이 이 지역이 겪은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글로벌 냉전의 역학과 각 지역의 특성이 만나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편으로는 냉전이라는 학문적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지속과 새로운 냉전의 등장이 언급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의 의미에 공감하셔서 훌륭한 원고를 보내 주신 여섯 분의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장인성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의 기존 학술지를 개편해서 『세계정치』를 발간한지도 벌써 11년, 그리고 편집의 책임을 맡게 된지도 7년이 넘었다. 그동안 학술지의 출판을 위해서

애써 주신 출판사 관계자들과 연구소 간사들, 그리고 출판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여러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계정치』가 관련 연구의 경향을 추종하는 학술지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선도해 가는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신옥희